



2013년 10월

이요셉, 이에임, 예진, 상화  
이메일: yusuf.emy@gmail.com  
인터넷전화: 070-8292-9822

##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삼상 30:6)

기도편지를 쓰는 제 마음 한쪽 편에 실망, 불편함, 분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 한 달간 수고하여 한 학생을 한국의 한 대학에 최상의 조건으로 유학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학지원서를 작성하고 있어야 할 이 학생이 갑자기 지원을 포기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부랴부랴 내일 오전에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제 마음 속은 의문과 함께 실망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하였고 오늘 하루종일 저를 어둡게 하였습니다. 저의 상황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위기의 순간과 커다란 배신의 감정을 느끼는 상황에 처한 다윗을 봅니다. 그는 크게 다급하였지만 이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시금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부끄럽고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저를 바라봅니다. 내일 이 학생을 만났을 때 내가 오늘 하루종일 느낀 감정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를 통해 그의 상황을 듣고 이해하며 좋은 방향으로 진로를 결정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할 수 있기를 다짐해 봅니다.

**개학.** 8월말 B대학이 여름방학을 마치고 개학을 하였습니다. 이곳은 한국과 달리 가을에 새 학년을 시작 합니다. 7월 초 그동안 가르치던 4학년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재학생들 모두 한 학년씩 진급을 하였습니다. 2명의 4학년 학생들에게 졸업연구논문을 지도하게 되었고, 한 명의 대학원생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모두 개별적으로 참 똑똑하고 공부와 연구에 대한 열의가 있지만 실험실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보니 연구에 많은 제약이 있고 학생들에게도 참 미안합니다. 부족한 실험 및 연구 환경이지만 나름 열심히 하는 학생들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10월 중순에 국제학술 대회가 B대학에서 개최



되었습니다. 이 때 논문도 제출 하였고 발표도 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논문이 최고논문으로 뽑혀 상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노력해온 학생들에게 고마웠고, 동료 교수들이나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학문적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D종족.** 7월 D종족 형제들이 사는 지역에 가서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다른 지역에 살다보니 비행기를 타고 S시로 가고 차로 6시간 이상 운전하여 가서 하룻밤을 함께 보내고 다시 돌아오는 다소 긴 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방문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형제들이어서 너무나 반가웠고 신앙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가는 그들이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들이 사는 지역에 선교사나 현지인 사역자가 이미 철수하였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신앙을 간직하며 믿음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큰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 전 현지인 사역자 H형제 가정이 다시 돌아와 이 근처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H형제를 통해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정비되고 말씀으로 굳건하여 지기를 기도합니다.

**한국어반.** 지난 학기에 소수 학생들을 모아 진행한 한국어반을 통해 몇 명의 학생들과 가까워지고 개인적인 관계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오픈 강의로 하여 한국어를 배우는데 관심 있어 하는 학생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수업 일정상 4학년 학생들을 위주로 모집 하였는데 40여명의 학생들이 모여 매주 한국어 수업을 아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와 달리 많은 학생을 모아 수업 형식으로 하다 보니 개별적인 관계를 만드는 데는 제약이 있지만 딱딱한 전공강의와 달리 즐겁고 여유 있게 많은 학생들과 소통하고 알아가는 재미가 있네요. 지난 학기와 같이 현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으로 유학 보는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으로 유학 가는 것이 결정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따로 집중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소수의 학생들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고 마음 깊은 곳까지 상담하며 영향 끼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한국방문.** 10월28일부터 11월3일까지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시톰별교수님과 함께 연구프로젝트 관련 미팅을 참석하고 여러 대학들을 탐방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이고 분주하게 전국을 다니게 되어 많은 동역자들을 만나 교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와 시톰별교수님이 함께 이동하는 여정에 안전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귀한 교제가 있고 도전이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 아내 선교사의 편지

이곳은 여전히 여름 날씨를 고수하며, 사시사철 동일한 계절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한국은 추석도 지나 가을을 실감케 하며,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지요.

지난 2월에 집을 저렴한 곳으로 이사하고, 우기철은 아니지만, 가끔 비가 올 때 마다 집안은 홍수를 방불케 합니다. 우기철에는 천정도 떨어져 대공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계속되는 수리에 스트레스가 쌓이기도 하며, 때론 체념으로 일관하기도 합니다. 다시금 돌아올 우기가 되면 맘 한켠에 또 다른 염려가 되는데... 집이 수리를 통해 호전되어 지기를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은 남편과 함께 이곳 대학에 나가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거의 두 시간을 서서 속강을 하고 나면 하루의 에너지를 모두 씁니다. 주부여서 사역의 현장에 늘 있지 않기에 많은 시간을 가정과 다른 삶의 영역 안에 갇혀 있는데, 한편으로는 부담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 뭔가 조금은 섬길 수

있는 길이 있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섬깁니다. 대학생들이 곧잘 한국어를 사용하며, 수업에 임하는 모습에 절로 신이 납니다. 한국의 위상이 이곳저곳에서 느껴질 때면 절로 자부심도 생깁니다.

지난 7월 말 한국에서 돌아와 건강에도 늘 유의하며, 최선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여러가지로 도와주신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모두가 주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진**이는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중학교에 비해 공부 양도 많고 내용도 어려워진 것 같은데 스스로 알아서 학업과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진로에 대해 생각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대학을 가야하는 이유를 성경적 세계관 속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상화**는 최근 들어 우리 가정의 살아가는 방식이 친구들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 모양입니다. 선교사자녀 학교로 시작한 학교이지만 현재는 일반 가정의 학생들 비율이 훨씬 더

높다보니 경제적으로 비교가 되고 삶의 가치관이 다름을 느끼게 되어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묻습니다. 자연스럽게 선교사로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해 주며 아직은 흐릿하겠지만 선교사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의미 있는 것인지 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 저희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1. 주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삶을 살아가도록.
2. 이요셉선교사. B대학에서 시톰별교수와의 팀웍이 잘 형성되어 연구 및 적정기술 개발에 대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강의, 연구, 지도, 한국어반, 유학준비반 등을 통해 학생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고 정서적, 영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10월28일~11월3일 시톰별교수와 함께 한국방문 동안 안전과 순조로운 일정이 진행되도록.
3. 이예임선교사. 분주함속에서도 늘 말씀 묵상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지도록. 관계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국인과 현지인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B대학에서의 한국어강의를 통해 학생들과 친해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4. D-종족 형제들의 믿음의 공동체가 굳건해 지고 사역자 H형제 가정의 정착과 그를 통해 더욱 건강한 신앙공동체가 만들어 지도록. D-종족 2-3세대 형제들을 위한 장학기금이 만들어지고, 이들이 지도자로 준비되어지도록.
5. 예진이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앞으로의 진로를 기도로써 준비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6. 상화가 선교사 자녀로서 살아가는 의미를 잘 깨닫고 정서적,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